

제239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1 호)

해운대구의회사무국

2019년 2월 13일 (수) 오전 11시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 건
2.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3. 휴회의 건
 - 5분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면
2.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2면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2면
 - 5분자유발언(김상수·이상곤·원영숙 의원) 2면

○의장 이명원

(11시 04분 개의)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박현주

의사팀장 박현주입니다.

제239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이명원

다음은 지난 1월 9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소개를 부구청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강태기

존경하는 이명원 구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운대구 부구청장 강태기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오늘 구청장님께서 전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려야 합니다만 백스코 VIP 행사 참석 관계로 부득이 제가 대신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는 부산시 교육협력과장으로 근무하다가 지난 1월 9일 자로 해운대구 부구청장으로 부임한 강태기입니다. 다시 한 번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우리 구로 전입한 교통안전도시국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해중 교통안전도시국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원

환영합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 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이상곤 의원, 박기훈 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회기결정의 건

○의장 이명원

(11시 10분)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39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39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2월 13일부터 2월 29일까지 7일간 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장 이명원

(11시 11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김백철 의원, 김삼현 공인세무사, 김대일 공인회계사, 박도근 전직 공무원 등 네 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 건

○의장 이명원

(11시 12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월 14일부터 2월 18일까지 5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자유발언(김상수·이상곤·원영숙 의원)

○의장 이명원

(11시 12분)

이상으로 안건 심의를 마치고, 5분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 의원, 이상곤 의원, 원영숙 의원께서 각각 신청하셨습니다. 신청 순서에 따라 김상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의원

평소 존경하는 이명원 의장님 그리고 임말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해운대 꿈이 현실이 되는 해운대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강태기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중2동, 좌2동, 송정동 김상수 의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 ‘2018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 2등급, ‘2018년 부패방지 시책 평가’에서 우수등급이라는 결과를 달성했는데, 이 모두 우리 해운대를 사랑하고 주민을 위해 불철주야[不撤晝夜] 노력하고 계시는 공무원이 없었다면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다시 한 번 노고에 감사드리고 축하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역관광 발전을 위한 우리 구 관광기념품 개발에 대해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전 세계 관광산업은 굴뚝 없는 제5의 첨단산업으로 불리는 만큼 향후 조례가 제정되면 ‘스쳐가는 관광’에서 ‘머무르는 관광’으로 관광정책이 전환되길 희망합니다.

얼마 전 부경신문 종합면에서 청장님께서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로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해운대의 관광 활성화 정책 대안 중의 일부로 달맞이고개를 문화특구로 육성하고, 해운대의 대표 먹거리와 해운대만의 특색 있는 관광기념품 개발도 서두르겠다.’라고 하셨습니다.

해운대가 대표 관광도시로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관광객이 해운대를 기억할 수 있는 기념품 개발이 꼭 필요합니다. 관광기념품은 관광도시 해운대를 상징하고, 해운대만의 특별함을 담고, 트렌드(trend)에 발맞춰가고, 실용적이어야 관광객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운대만의 고유 관광기념품을 개발해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판매함으로써 해운대를 널리 홍보해야만 합니다.

해마다 수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지만 이들에게 뭔가 기념이 될 만한 상품은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자체적으로 해운대 우표, 거북이 USB, 컬러링 북 등 다양한 기념품 개발과 공모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으나 아직은 해운대를 대표할만한 구체적인 관광 상품 개발 계획조차 없는 바, 그 아쉬움은 더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세 가지를 제안 드립니다.

첫 번째, 관광기념품 개발을 위해서는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해운대구 관광기념품 개발 육성 지원 조례를 제정해야 합니다. 필요할 때마다 관광기념품을 개발하고 판매할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계획과 지원을 하고 관광기념품 공모, 경진대회 및 전시회 등을 개최하여 우수 관광기념품을 육성해야 합니다.

두 번째, 관광기념품은 트렌드입니다.

트렌드에 맞는 관광기념품 개발을 위해서는 관광객들이 좋아하는 기념품에 대한 시장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평가단을 통해 평가 후 기념품을 개발, 판매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기념품은 반기별 평가를 통해 판매량과 선호도를 평가하여 추가 생산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지속적인 피드백(feedback)과 평가가 있어야 해운대구 관광기념품 사업도 나날이 성장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는 솔밭예술마을, 아트마켓 등 지역 작가들이 다양한 작품 활동을 하며 해운대를 대표하는 상품들을 만들고 있고, 그 중에는 고래사 어묵, 청사포 달맞이 미역, 해운대달맞이 빵 등 주민들의 입소문이 난 상품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품들과도 협업하여 지역성을 가진 기념상품으로 개발시켜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4 (제239회-제1차)

세 번째, 관광기념품의 판매와...

(1회 타중)

공동 마케팅 추진입니다.

아무리 좋은 관광기념품이라 해도 관광객이 가져갈 수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현재 해운대 관광안내소에 바다상점이라는 공식 관광기념품 판매 장소가 있습니다. 우리 구가 심혈을 기울여 개발한 기념품이 바다상점뿐 아니라 더 많은 곳에서 판매되어 지역 상권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앞으로는 달맞이안내소와 청사포안내소 기념품점과 부산시 관광기념품점 등과도 연계해서 해운대구 관광기념품을 알리고 판매될 수 있는 기회를 더욱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운대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지입니다. 국내외 관광객들이 해운대에 오면 해운대를 기념할 만한 상품은 꼭 하나 정도는 들고 가야 합니다. 해운대를 담고, 누구나 갖고 싶어 하고, 실용적인 관광기념품을 개발하여 사고 싶은 기념품, 꼭 사야 하는 기념품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원

다음은 이상곤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곤 의원

존경하는 42만 해운대구민 여러분, 1만 7,600여 명의 장애인 여러분, 이명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강태기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원들의 의정 활동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간사 이상곤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장애인 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 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라는 법률에 근거하여 항상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있는 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최근에 해운대구를 대표하는 18개 동, 송정동부터 반송까지 적게는 한 번에서 많게는 다섯 번까지 전 주민센터를 찾아다니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실태를 파악하였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의 교통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법으로 지정한 것으로 1993년에 장애인 자동차 표지 제도를 도입하여 1998년 4월부터 장애인편의증진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차량만 주차할 수 있으며, 불법 주차 시에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 해운대구에서도 2017년 6,406건을 단속해서 5,233건, 5억 2,87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2018년에는 6,173건을 단속해서 4,961건, 4억 9,318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그런데 과태료만 부과할 줄 알았지, 우리 구청기관에서는 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제대로 설치하였는지 18개 동에서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을 보시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정확한 기준이 없이 여러 가지 형태로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인 주차장 설치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해당 부설 주차시설 내에서 장애인의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설치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와 가까운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

두 번째, 장애인 주차장은 가로 3.3m 이상, 세로 5m 이상의 공간을 확보해야 하고, 운전석 쪽에 1m의 휠체어 라인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세 번째, 주차구역의 정면에는 1개의 면당 1개의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이용대상과 운영 목적, 위반 시 조치사항, 신고 전화번호 등을 고지해야 하며, 장애인 표지판에 포함되는 정보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으며, 문구를 임의적으로 변경하거나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네 번째,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안내표지를 주차장 안의 식별하기 쉬운 곳에 부착하거나 설치하여야 하며, 안내표지의 규격은 가로 0.7m, 세로 0.6m로 하고, 지면에서 표지판까지의 높이는 1.5m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는 주차장 운영시간과 관계없이 24시간 비장애인이 주차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규격은 법으로 제정된 장애인들의 당연한 권리이자, 국민들도 이를 지켜야 하는 의무임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해운대구에서도 장애인 주차장 설치 기준에 근거하여 올바르게...

(1회 타중)

설치하여 더 이상 장애인이 장애인 주차의 불편을 통하여 마음까지 다치지 않기를 바라며, 개선을 위하여 구청장님 및 관계공무원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원

마지막으로 원영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숙 의원

구민의 목소리를 귀담아들으시며 늘 소통하시는 존경하는 이명원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사람중심 미래도시 해운대’를 위해 앞장서고 계시는 강태기 부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2동, 우3동 지역 원영숙 의원입니다.

‘마린시티, 미개발부지에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제목으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야경이 아름다운 마린시티는 2019년, 2020년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곳’, ‘한국 관광 100선’에 선정되었습니다.

마린시티는 고급 주상복합아파트와 오피스텔 등이 들어서면서 수려한 건물과 아름다운 야경으로 멋진 도시로 변모하고 있지만, 학교 및 복지시설, 편의시설 등 공공시설이 부족하여 삶의 질을 높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지막 남은 마린시티의 구(舊) 한화갤러리아 부지와 관련하여 지난해 초고층 콘도형 숙박시설 사

6 (제239회-제1차)

업을 추진하다가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로 무산되었던 부지에 또다시 65층 4개 동의 공동주택을 짓겠다고 공동주택 불허 C시설에서 공동주택 허용 E시설로 우리 구에 지구단위계획 변경 신청이 되었는데, 이에 대해 본 의원은 대다수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지난번 숙박시설 건립 반대에서 제기되었던 아이들의 학습권 침해와 빈번한 정체 구간인 해운대해변로의 교통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고, 주변 주민들의 일조권, 조망권 등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특히 사업부지 바로 20m 앞에 위치한 해원초등학교의 경우 2007년도 마린시티 지구단위계획 당시 공동주택 5,638세대로 고시될 때 30학급, 952명을 수용할 3,446평의 학교 부지로 결정고시하였으나, 2011년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학생 수가 줄어든 것이라는 심의 결과로 부지면적이 3분의 1가량 축소된 2,383평으로 변경되었고, 나머지 1,063평은 공동주택 부지로 팔아 현재 마린시티 자이 258세대를 신축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마린시티의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에서 공동주택 가구 수가 2007년에 5,638세대, 2012년에도 같은 5,638세대인데도 학생 수가 줄어든 것이라는 2011년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정으로 해원초등학교가 2012년 3월, 17학급으로 개교하였으나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두 차례나 교사 증축을 할 만큼 과밀학급이고, 매년 학급을 증설할 정도로 학생 수가 급증하여 지금은 34학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엉터리였고, 개발 업자에게 특혜를 준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린시티의 공동주택 가구 수가 당초 지구단위계획 결정 당시 고시되었던 5,638세대에 근접해 있는데, 또다시 1,000세대를 증가시킨다는 것은 아이들의 학습권 침해와 교통지옥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라 사료됩니다.

민간사업자가 이익을 위해선 무엇이든 할 수 있겠으나 주민생활의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만약 불편이 생긴다면 충분히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불편을 해소할 대책을 먼저 강구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마린시티는 공동주택이 5,000세대가 넘고 오피스텔에 주거하는 주민들을 포함하면 훨씬 많은 세대가 살고 있는데, 초등학교가 한 곳만 있고 과밀학급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 이상 공동주택을 허가한다는 것은 마린시티 주민과 주변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난개발이 되는 것입니다.

민간사업자가 공동주택 외 다른 사업으로는 수익성이 없어 사업을 하지 못한다면...

(1회 타중)

마린시티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부산시나 부산시교육청 또는 우리 구가 여러 방법을 강구하여 주민 편의시설이 되도록 조성했으면 하는 바람을 본 의원은 꿈꾸어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원

세 분 의원님의 멋진 5분자유발언, 잘 들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태기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1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출석의원 : 18인

이명원 임말숙 문현신 김경호 원영숙 김정욱 최은영 김상수 김백철 박성식 장성철
이상곤 박기훈 조영진 김성균 서정학 정순세 김혜진

○출석 관계공무원

부 구 청 장	강태기
관 광 경 제 국 장	백종기
주 민 복 지 국 장	김용전
교 통 안 전 도 시 국 장	김해중
보 건 소 장	조봉수

○의회직원

사 무 국 장	임외현
의 사 팀 장	박현주
사 무 직 원	박진우
사 무 직 원	김숙경
속 기 사	김혜미

【보고사항】

1. 집회요구 및 공고사항

- 집 회 요 구 : 2019. 1. 30. 구청장
- 의사일정협의 : 2019. 2. 1. 의회운영위원회
- 집 회 공 고 : 2019. 2. 1. 의장

2.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2019년 2월 1일 원영숙·박기훈 의원 공동발의)
 - 발의자 / 원영숙 박기훈
 - 찬성자 / 이상곤 정순세 문현신 장성철 조영진(이상 1건 2019년 2월 1일 의회운영위원회 회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포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1건 2019년 2월 7일 문현신·원영숙·장성철·정순세 의원 공동발의)
 - 발의자 / 문현신 원영숙 장성철 정순세
 - 찬성자 / 조영진 김백철 최은영 김경호 이명원 임말숙 김정욱 김혜진 박기훈 김상수(이상 1건 2019년 2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 회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19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반여3동 노인복합복지시설 건립)

8 (제239회-제1차)

(이상 2건 2019년 1월 31일 구청장 제출)

(이상 2건 2019년 1월 31일 기획관광행정위원회 회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2019년 1월 31일 이상곤·서정학 의원 공동발의)

· 발의자 / 이상곤 서정학

· 찬성자 / 김성군 김경호 조영진 원영숙 최은영 문현신 김백철 김정욱 정순세

(이상 1건 2019년 1월 31일 주민도시보건위원회 회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2019년 2월 7일 문현신 의원 발의)

· 발의자 / 문현신

· 찬성자 / 원영숙 김경호 김정욱 김성군 최은영 김백철 조영진 이명원 임말숙 정순세

김혜진 박기훈 김상수 장성철

(이상 1건 2019년 2월 7일 주민도시보건위원회 회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로명주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애인근로사업장 및 전용목욕탕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해운대구장애인복지관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4건 2019년 1월 31일 구청장 제출)

(이상 4건 2019년 1월 31일 주민도시보건위원회 회부)

3. 5분자유발언 신청

발 언 요 지	신청자	신청일
해운대에는 관광기념품이 없다	김상수	1. 18.
올바른 장애인전용주차장 설치를 바라며	이상곤	2. 12.
마린시티, 미개발부지에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다	원영숙	2. 12.

4. 기타 의정활동 사항

활 동 내 용	일 시	장 소
총렬사·삼절사 신년 참배	1. 9.	안락동, 반송동
미국 글렌데일시 우호협력사업 관련 업무 협약식 - 대상 : 새마을회, 자원봉사센터	1. 23.	의장실
글렌데일시 위안부의 날 기념문화 행사 알리기 국회 특별전	2. 11.	국회